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

송 영 경* · 임 영 자**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The Study on the Hollywood Film Costume of Fashion image in 1930s

Young-Kyoung Song* · Young-Ja Lim**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7. 8. 23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images of Hollywood movie costumes centering on the costumes of actresses who are the fashion leaders creating fashions especially focusing on those in 1930s. The scope of this study covers the movie costumes selected from the movies ranging from 1930 to 1939 centering on the Hollywood movies produced and released by large movie distributors and the movie costumes of heroins that exerted great influences on the culture and clothing history of 1930s were examined. As for the methods of study, visual data and image data including movies were collected through related dissertations, articles in journals, internet sites relating to movies and photos and we have analyzed each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ie costumes appearing in each imag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ethnic images were the reflection of orientalism that was popular in the fashion of the age with the purpose of highlighting the exotic appearances of the actresses and were the cases where the characters of the actresses had to be expressed in ethnic styles due to the spatial backgrounds of movie works. Secondly, glamorous images were highlighting the appeals of plump breasts, shoulder lines and the bodies constricted in the middle and the Hollywood movie costumes in 1930s. The smooth and flowing silhouettes of the heroins of the age were mainly long and slim patterns and female's images were expressed by highlighting the beauty of leg lines or especially by halter neck evening dresses that exposed backs and covered breasts. Thirdly, mannish images reflected tough images of males in order to further highlight the reality of the characters of the heroins of the age pursuant to the emergence of the opinions advocating th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Key words: film costume(영화의상), 1930's hollywood(1930년대 할리우드), ethnic(에스닉),
glamour(글래머), mannish(매니쉬)

I. 서론

패션은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예술적 반영물이며 그 시대의 문화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중 예술인 영화도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문화 활동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된 영화예술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탄생한 전체적인 총화의 예술이다.¹⁾ 영화는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화산업이며 대중사회의 중요한 매체이며, 영화의상이란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말한다. 영화의상은 그 시대의 움직이는 종합 패션이라고도 하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부터였다.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는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오락으로서 사람들은 값싸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 그들의 꿈을 만끽하고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였다. 따라서 영화 산업은 호황을 누렸고 할리우드 영화는 패션, 인테리어,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었다. 1930년대 세계적인 영화 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 영화는 영화의상의 진수를 보여줬던 시기로 당시의 영화의상은 일반대중들의 패션을 선도 하였고, 할리우드의 영화의상 디자이너들은 현대패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세계의 어느 디자이너들 보다 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의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성(2005)²⁾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에 나타난 20세기 서양 여성의 화장과 헤어스타일 연구에서 헤어의 형태와 색, 그리고 피부, 눈, 입술 화장의 형태와 색상을 중심으로 영화 속 여배우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권현진(1994)³⁾은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에서 특정 영화 내에서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영화의상을 극중배역과 신체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이정희(1997)⁴⁾와 조은영(1988)⁵⁾은 영화의상이 현대 패션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정세희(2002)⁶⁾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중심으로 1930년에서 1990년대 영

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의상이 영화전체의 은유로 작용하면서 수행하는 잠재성과 해방, 정체성의 유동성 등을 중심으로 성, 젠더, 의상을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화의상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복식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화의상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현대 패션에 많은 영향을 준 시발점이 1930년대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범위는 1930년부터 1939년에 걸쳐 엠지엠(Metro-Goldwyn-Mayer), 파라마운트(Paramount), 워너 브라더스(Waner Brothers) 등과 같은 대형 배급사에서 제작 발표된 <Romance>(1930), <Hell's Angels>(1930), <Platinum Blonde>(1931), <Mata hari>(1931), <The Scarlet Empress>(1932), <Shanghai Express>(1932), <The Painted Veil>(1934), <The Devil Is a woman>(1935), <Jungle Princess>(1936), <Holiday>(1938), <Tropic Holiday>(1938)와 같은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화의상 중에서도 1930년대 패션리더로서 당시 여성들의 패션을 선도했으며 문화적, 복식사적 많은 영향을 끼친 주역 여배우들의 영화 의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배우의 선정 기준은 1999년 미국영화연구소가 발표한 미국의 위대한 배우 50명⁷⁾중 여배우 25명 순위 중 캐서린 헵번(1위), 그레타 가르보(5위), 마블렌 디트히리(9위), 조안 크로포드(10위), 진 할로우(22위)를 기초로 하였으며, 순위 외에 미 웨스트, 도로시 라모르를 추가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학위 논문과 학회지 논문 그리고 영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 영화포스터나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와 영화 등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여배우의 영화의상을 이미지별로 나타나는 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물 의상을 통한 분석이 아니고 영화 속에서 나타난 여배우의 영화 의상을 분석했으므로 영화 속에서 노출된 빈도와 촬영 각도에 따라 분석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활용된 시각

자료가 주로 흑백 영화이거나 흑백 인쇄물로 영화의 상의 순수한 색과 정확한 소재의 구별이 힘들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1930년대 미국의 사회문화적, 복식사적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

미국은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경제대공황을 맞게 되었고 이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으며 세계경제 사상 전례 없는 많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반동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Fascism)이 확산⁸⁾되었는데 특히 파시즘 정권은 경제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침략을 시도하여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시켰다. 1930년대는 쾌락적이고 활기찼던 1920년대와는 상반된 가라앉은 우울한 시기로 대중들은 영화 속의 환상적인 세계를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보상받으려하였다. 영화는 현실도피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으며, 대중들은 영화 속 여배우들의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1930년대는 영화가 패션과 미의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패션 스타일이 영화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로 인해 의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었다. 반면 디자이너들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실용적이고 이윤이 많이 남는 패션을 생산할 기회를 잡았다.⁹⁾ 당시 <보그>나 <하퍼즈 바자> 등의 일류 모드 잡지는 상류 계층용에서 일반 계층용으로 성격을 바꾸어 모드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매 시즌마다 새로운 파리 컬렉션은 라디오로 보도되어 모드는 점차 대중화 되었다.

1930년대는 대공황의 쇼크 이후 경기침체와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으로 성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였으며 1920년대의 진보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회복시키려했다. 미국사회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까지 농촌사회

에서 도시사회로 바뀌어 갔고 백화점들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중공업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었다.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장식 예술 분야는 아르누보의 유동성을 단순화시키고 입체화시켜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행시킨 아르데코 양식이 유행하였다. 당시의 또 다른 예술의 경향은 초현실주의와 모더니즘으로, 초현실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의 비극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파괴 행위에서 도피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갈망하며 등장하였고, 인간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동기술법, 위치전환법, 오브제의 도입 등으로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근원은 다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다다란 기존의 철학, 사상, 전통의 불신, 새로운 것, 파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욕구에 충실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화가로는 살바도르 달리를 꼽을 수 있다.

2) 복식사적 배경

1920년대가 젊고 발랄하며 자유분방한 10대, 20대의 모드라고 한다면 1930년대는 길게 흐르는 H라인과 세련된 글래머 스타일이 나타나 보다 매혹적이고 여성스런 몸매를 새롭게 의식하게 되었다. 1930년대는 여성의 신체곡선을 부활시킨 화려한 색채의 긴 스커트의 유행하였는데, 여성스러운 신체의 자연적인 선을 나타낸 훌쭉하고 긴 슬림 앤 롱(slim & long) 실루엣¹⁰⁾은 전 시대의 직선적인 형태보다 훨씬 더 관능적으로 보였다. 이와 같이 1930년대는 개성과 성의 고유성을 회복한 엘레강스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스커트 길이는 종아리 길이로 길어졌고 허리선이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며, 몸통은 꼭 맞고 어깨가 넓어지는 등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1930년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엘자 스킨 아파렐리(Elsa Schiaparelli)와 마들렌 비오네(Madeline Vionnet)로 이들은 역삼각형의 실루엣이나 소재의 드레이프를 최대한 살린 슬림한 실루엣을 선보였다. 1931년 파리의 식민지박람회 등에서 이국에 관한 다양한 호기심이 자극되면서 서구 디자이너들은 동양풍의 패션에 관심을 보였으며 예를 들면 폴 뷔아레의 허블 스커트와 하렘 스타일과 미나레 스타일

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주었다. 이국적인 기모노는 서양복식의 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파자마는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에는 실내복으로 활용되는 등 동양풍의 이국적인 복식이 직접적으로 차용되었다.

1930년대의 주목할 만한 패션의 변화로는 T. P. O 개념을 철저히 하면서 의복을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입기 시작했으며, 평상복과 이브닝웨어는 뚜렷하게 스커트 길이가 달라졌다. 의복은 파티 드레스, 타운웨어, 셔츠 웨이스트 원피스, 홀터넥 이브닝드레스, 운동복과 운동 관람복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었고 무엇보다 운동복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다. 일광욕이 대중화 되면서 비치 웨어나 수영복이 패션 잡지에 자주 소개되었는데 수영복은 1920년대 말부터 피부에 밀착된 저지를 사용하였고 해변에서 두르는 비치 랩과 펠릭이는 차양달린 모자 캔버스지로 만든 커다란 원통형 잡당도 크게 인기를 얻었다. 이 시기의 모던한 비치 웨어의 유행은 그 후 캐주얼 웨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현대 패션산업의 획기적인 발명품 나일론이 개발되었고, 탄력성 있는 소재의 올인원(all-in-one)이나 업리프트 스타일(up-lift style)의 브래지어의 개발은 여성의 신체를 관능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지퍼와 어깨 패드를 사용한 여러 가지 스타일이 등장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액세서리가 등장하였는데 특히 약간 옆으로 엮어 착용하는 작고 뾰족한 모자는 선풍적으로 유행하였고, 이러한 모자에는 깃털과 베일 등의 장식이 달려 있기도 하였다. 당시의 남자복식으로는 고급스러운 모직물이 많이 사용되었고 스포티한 요소를 가미한 정장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특히 게리 쿠퍼(Gary Cooper), 클라크 케이블(Clark Cable), 지미 스트리트(Jimmy Stewart) 등의 영화배우들과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원저공의 패션이 대중에게 영향을 주었다.¹¹⁾

2. 영화의상의 개념과 특성

영화는 종합예술로서 무용, 미술, 건축, 음악 등 다른 예술에 관한 이해력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조화

를 이루어져야 영화가 지향하는 카타르시스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가지의 요소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상과 움직임의 특성으로 하는 시각 표현적인 면과 공간 표현적인 면을 함께 갖추고 있는 예술이다. 따라서 영화는 근본적으로는 시각적이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혼합되어진 매체이다.¹²⁾ 즉, 영화는 시각전달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자극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화에서 배우들의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은 시각적으로 배우와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화의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영화의상이란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는데 이는 배우가 배역을 위해 사용하는 의상과 화장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의 특성을 지닌 독립된 분야로 나누어져 한 사람의 배우에 의해 표현되므로 시대적 상황과 목적에 맞게 표현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즉 영화의상은 극중에서 인물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영화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등을 사실적 상징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¹³⁾ 타이로프(Tairoff)는 영화의상은 “배우의 제 2의 피부”¹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영화의상은 배우들의 언어적 표현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영화의상은 디자이너의 하나의 상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영화의상이 대중 패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¹⁵⁾ 영화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배우의 외모와 영화의상과의 상호작용은 관객들에게 영화의 이해력을 증가시켜준다. 영화 의상은 배우의 행위인 연기를 초월하고 확장시키며 극적 스토리 전개를 돕는 한편, 수많은 관객에게 영향을 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타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모방이나 동조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¹⁶⁾ 이와 같이 영화의상은 단순한 배우의 옷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이해와 상상력을 주는 가장 효과가 큰 시각적 매개체이며 영화의상은 대중들의 모방심리에 의해서 현대 패션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3. 1930년대 할리우드 시스템과 영화의상

1910년대에 기반을 다진 할리우드는 1929년 대공황시기를 거치면서 영화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되었다. 1920년대 말 워너 브라더스사의 사운드 도입 이후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본격적인 유성 영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할리우드는 늘어나는 제작편수와 그에 따른 제작비 부담을 적절히 통제하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작시스템인 '스튜디오시스템'을 고안하였으며, 극장 소유주들의 패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스튜디오 즉 제작사 우위의 본격적인 독과점체제를 갖추었다. '영화관람'이라는 소비와 '스튜디오시스템의 독점체계'라는 생산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장르와 스타였다.¹⁷⁾ 스타라는 말은 원래 할리우드 초창기의 유명한 여배우를 지칭하는 말로 20세기 초 영화스타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독과점 체계를 설립한 스튜디오시스템, 스튜디오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스타시스템, 스타시스템의 원동력이 되었던 커스텀디자인시스템은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영화가 산업적 형태로 정착하게 된 1920년대부터 영화 자본가들은 스타라는 특정한 인물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배우들의 패션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부터였다. 이 당시부터는 영화에서 화제가 되었던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 다양한 소품 등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잡지에 연재되었고 이러한 잡지들은 여성들이 유행을 접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영화의 출현에 의해 모드의 국제적 교류가 가속화되었으며, 영화배우는 패션의 리더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¹⁸⁾ 할리우드 황금시대에 만들어진 스타시스템은 스튜디오의 전속 여배우들과 전속 디자이너를 연결하여 화려한 시네모드를 연출하는 체계로 스타패션이 기획되었다.¹⁹⁾ 따라서 이 시기부터 재능 있고 개성적인 할리우드 커스텀디자이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할리우드 커스텀디자인은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작은 공장 형태로 의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의상 대본을 준비하

여 배우가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착용할 의상과 카메라의 각도에 따른 여배우의 신체적 장단점과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마를렌 디트리히와 그레타 가르보 같은 대형 스타는 영화 당 보통 20여벌의 의상을 입으며 각각 3번에서 6번의 가봉을 거치는데 그 가봉은 일상적으로 2-6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배우가 완성된 옷을 입었을 때는 오염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 여러 직원들이 따라 다녔으며, 팔걸이와 발받침이 있는 90도 각도의 기검판(leading board)이 있어서 여배우들이 촬영 도중 의상을 구기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도왔을 정도이다.²⁰⁾ 1930년대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에는 뉴욕의 의상실이나 브로드웨이에서 스카웃 되어온 길버트 아드리안(Gilbert Adrian), 트라비스 벤튼(Travis Banton), 에디스 헤드(Edith Head), 오리 캐리(Orry-Kelly) 등과 같은 스타급 디자이너들이 스타 제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길버트 아드리안은 조안 크로포드, 진 할로우, 그레타 가르보 등의 유명한 여배우들의 영화의상을 디자인하였고, 에디스 헤드도 미 웨스트 등 많은 여배우의 영화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1936년에는 도로시 라모르를 대담한 패션의 사롱으로 연출하여 헤드 수영복을 유행시켰다.

III.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1. 패션리더로서의 할리우드 여배우

1930년대 할리우드의 여배우의 영화의상은 수백만 미국여성의 이상이 되어 반세기 이상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끼쳤다. 할리우드는 글래머와 멋스러운 옷 입기의 결정체를 보여주었고 여배우의 영화의상은 적극적으로 상업화되었다. 할리우드 영화가 당시 대중들에게 유행을 전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여성들이 의상디자이너나 패션 잡지의 패션 제안을 직접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선호하는 여배우의 룩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모방하기를 더 즐겼기 때문이다. 패션 이미지는 곧 특정 스타의 모습, 화장, 헤어스타일과 동의어가 되었고 1930년대 절정을 이루

었다. 당시에 우상시되고 모방의 대상이 되었던 여배우들은 1920년대의 여배우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그리고 초연한 이미지였다.

조안 크로포드는 1932년 러플로 어깨를 강조한 소위 레티 린튼 드레스를 입고 스타로 발돋움했는데, 레티 린튼 드레스는 여배우가 패션모델로 대중패션에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매우 장식적이며 사치스러운 이 드레스는 영화 개봉과 동시에 유행하였고 비슷한 드레스가 뉴욕의 메이시(Macy) 백화점에서 5만 벌 이상 팔렸다고 한다. 여기서 레티 드레스는 영화 <Letty Lynton>(1932)²¹⁾에서 조안 크로포드가 입었던 두벌의 드레스 중 러플장식의 흰색 오건디 드레스를 말하며, 아드리안이 디자인하였다. 어깨 패딩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해 주고 등의 늘어지는 여유분을 제거하여 어깨를 강조한 이 드레스는 그녀를 당시 세련된 패션리더로 떠오르게 하였다.<그림 1> 이와 같이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은 움직이는 패션 정보 매체로 대중들의 모방 심리와 동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유행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 1930년부터는 영화의상에서 착상을 얻은 의복들이 상품으로 규격화되기 시작했다. 1930년에 기성복 상인 버나드 월담(Bernard Waldam)은 '모던 머천다이징 뷰로(Modern merchandising Bureau)'에서 스크린 스타와 시네마모드를 발표하여 이 흐름을 한 방향으로 모을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한 영화로부터 착상을 얻은 의복들이 규격화되어 시장에 널리 퍼졌다.²²⁾

글래머와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로 잘 알려진 마를렌 디트리히는 당시 파리의 보석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호화스런 보석들을 아낌없이 스크린에 소개했으며, 에르메스(hermes)나 까르띠에(Cartier)같은 오늘날 낯익은 슱 브랜드를 30년대의 미국여성들에게 소개하였다.²³⁾ 그레타 가르보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력한 글래머의 매력에 포함시키면서 신비에 쌓인 삶과 조각 같은 체형으로 대중들에게 초연하고 냉정한 이미지를 남겼다. 그녀의 성적 매력은 육체적이기보다는 낭만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또한 캐더린 헵번은 바지와 편안하고 수수한 스타일을 선호하여 캐주얼한 아메리칸 스포츠웨어를 보여주었다.

20세기 말 복고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현대패션은 과거 유명한 영화배우에게서 영감을 얻고 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과거 기술의 진보는 거의 한 세기를 뛰어 넘어 현대인이 과거의 영화 속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미지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에게 영감을 주는 교감을 가능하게 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1930년대 여성미를 대표하는 마를렌 디트리히, 그레타 가르보, 조안크로포드 등은 오늘날까지 은막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마를렌 디트리히는 2003년 프랑스 파리의 musee Galliera에서 열린 전시 'Maelne dietrich, The Creation of a Myth'에서 '글래머, 우아함, 유혹의 정수'로 평가받았다. 또한 2004년 S/S 크리스티앙 디올은 컬렉션의 테마를 '21세기 마를렌 디트리히'로 하여 디트리히의 매니시 슈트의 패션이미지를 재해석하였다.

2. 193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의 영화의상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이미지란 복잡한 환경을 하나의 개념 속으로 단순화하는 의미 있는 상징으로, 패션의 이미지는 의복의 유형, 선, 재질, 색채, 디테일이나 트리밍과 같은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이 조합되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즉 패션이미지란 패션으로 나타난 분위기를 이미지화하고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개성과 미적 감각을 표현해준다. 영화에는 벨로블, 코믹물, 폭력물, 공포물, 전쟁물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영화장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화의상의 이미지도 다양하며 그 장르에 맞추어 적절한 의복 스타일과 색채, 장신구 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루이스 자네티(Giannet, Louis D.)에 따르면 디자이너가 영화 의상을 제작할 때는 시대, 계급, 성, 나이, 옷감, 장신구, 색채, 신체노출, 기능, 이미지와 같은 10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3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의 영화의상 중 루이스 자네티가 제시한 분석 중 옷감, 장신구, 색채, 신체노출, 이미지를 종합하여 패션이미지를 분류하였다. 1930년대 주역 여배우의 영화의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에스닉 이미지, 글래머

이지미, 매니쉬 이미지로 분류하여 할리우드 여배우의 영화의상에 나타난 패션이지미를 살펴보았다.

1) 에스닉 이미지

에스닉(Ethnic)은 인류학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에스닉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교도라는 것으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시아 쪽 사람들을 지칭한다.²⁴⁾ 에스닉 이미지로 주목되고 있는 페루, 타이티, 멕시코, 인도, 일본, 그리고 중국, 아라비아 반도는 신비성이 가득해서 과거부터 고유의 민족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에스닉은 각국에서 전해 내려온 민속 의상이나 고유 염색 방법, 직물, 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스타일이다.²⁵⁾ 에스닉 이미지의 색상은 주로 강렬한 원색의 비비드 톤과 깊은 닙톤을 중심으로 강하고 화려한 배색대비로 표현하며, 소재는 거친 양모, 면, 마 등의 전통 소재와 특정 지역의 민속풍 문양을 이용하여 독특한 프린트물이나 자가드 직물을 많이 이용하며, 주로 사용되는 디테일로는 패치워크, 자수,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법이 있다. 에스닉 이미지는 20세기 초에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동방예술로 인해 폴뿌아레의 동양풍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는 흑인, 히피 등의 하위문화집단으로부터의 아프리카풍, 히피풍이 복식에 전파되었다.²⁶⁾ 에스닉 이미지에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입는 사롱(Sarong) 스커트, 유럽지역의 농민 의상, 남미지역의 인디오 의상, 중국과 일본풍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낯설고 독특한 멋을 추구하는 감성의 엑조티즘(Exoticism)이 포함된다. 특히 엑조티즘은 이국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외국의 풍속이 반영된 감각을 말한다.

에스닉 이미지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따라 표현되거나 여배우의 이국적인 스타일로 신비감을 표현할 때 주로 나타난다. 마를렌 디트리히는 깃털, 베일, 모피, 글리터 등 디자이너 뎀튼과 함께 그들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를 앞세워 이국적인 룩을 창조하였다. 할리우드는 일찍부터 이국주의 글래머를 활용하여 에스닉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배우들을 영화에 등장시켰다. 특히 유럽 출신인

마를렌 디트리히나 그레타 가르보는 창백한 이국주의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많은 영화에서 오리엔탈화 되었다. 색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흑백영화에 표현된 영화의상의 에스닉 이미지는 소재의 입체감을 강조하는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풍성한 텍스처를 부여하고 극적인 명암대비를 활용하였다.

마를렌 디트리히는 <The Scarlet Empress>(1932)에서 눈부신 바이어스 컷 라메 드레스와 모피 장식 드레스를 입었고, 모피 머프와 모피 모자 <그림 2>를 착용하여 혁명 전 러시아 귀족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겼다.²⁷⁾ 또한 모피는 3차원 표면 위에서 다채로운 빛의 분산효과와 풍부한 재질감을 나타내며 라메, 새틴과 함께 영화의상에서 사치스런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코삭 지방의 이국적인 매력을 잘 표현해주었다. 그녀는 모피를 특히 애용했는데, <그림 3>은 파라마운트사의 영화 <Blonde Venus>의 1930년대 당시 포스터로 푸른색의 모피와 깃털 장식으로 사치스런 이미지를 잘 표현 하고 있다. <Shanghai express>(1932)에서 마를렌 디트리히는 가죽 장갑과 검은 베일, 깃털 장식으로 매혹적인 에스닉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여러 겹의 깃털로 만든 베일과 터번과 여행용 슈트로 그녀는 고급 취향과 경험 많은 중국 상하이 여성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 <The Devil Is a woman>(1935)에서 마를렌 디트리히의 흰 레이스의 정교한 영화의상은 전형적인 스페인풍의 러플 장식 소매와 케이프, 스카프와 조화를 이루었고 만틸라 대용의 레이스 모자가 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동양배우가 그 존재감만으로 이국의 신비함을 전달하는데 반해 그녀는 탁월한 의상과 액세서리 선택과 조명 등의 조작을 통해 창백하고 유혹적인 에스닉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레타 가르보는 영화 <Romance>(1930), <Mata hari>(1931), <The Painted Veil>(1934)에서 에스닉한 영화의상을 보여줬다. 그녀는 <Romance>(1930)에서 어깨가 V네크라인으로 드러난 넓은 솔 칼라 드레스를 입었고, 뾰족한 날개와 같은 라펠이 달려있었다. 또한 그레타 가르보의 이국적인 매력이 돋보였던 <Mata hari>는 193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꾸뛰르와



〈그림 1〉 조안 크로포드
'Letty Lyton'²⁸⁾



〈그림 2〉 마를렌 디트리히
'The Scarlet Empress'²⁹⁾



〈그림 3〉 마를렌 디트리히
'Blonde Venus'³⁰⁾



〈그림 4〉 그레타 가르보
'Mata Hari'³¹⁾



〈그림 5〉 도로시 라모르
'Jungle Princess'³²⁾



〈그림 6〉 도로시 라모르
'Holiday'³³⁾

기성복 시장에서 인기를 누렸던 오리엔탈리즘에 기여하였다.〈그림 4〉 그레타 가르보는 발끝까 지 골드라메로 치장하였는데, 그 긴 재킷 속에 타이트 골드레깅스와 부츠를 신고, 머리에는 터번을 써서 그녀의 “창백한 이국주의(pale exoticism)”를 구체화하였다.³⁴⁾ 또한 〈The Painted Veil〉(1934)에선 중국풍 의상을 선보였다. 그녀는 흰색의 터번과 바다에 끌리는 코트를 입었는데 유선형의 실루엣과 에스닉한 디테일로 현대적이고 신비로운 우아함을 보여줬다. 또한 베일이 달린 필박스 모자는 〈The Painted Veil〉(1934)에서 선보인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드리안이 가르보를 위해 한쪽 눈 위에 기울여서 쓰는 타조깃털 장식의 작은 벨벳 모자를 고안하여 탄생하였다.

또한, 도로시 라모르는 영화 〈Tropic Holiday〉(1938)에서 빨강, 파랑, 노랑 등의 강렬한 원색적인 자수의

수직 레보자(Rebosa), 숄, 넓은 가죽 벨트로 멕시코 민속의상의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5〉 에스닉 이미지는 서구의 복식에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미하였는데, 멕시코 전통 직물을 활용하였으나 원시적이고 소박한 느낌보다는 현대적인 화려함으로 표현하였다. 도로시 라모르는 영화 〈Jungle Princess〉(1936) 〈그림 6〉에서 이국적인 사롱(sarong) 스타일을 통해서 필립의 여왕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대담한 꽃무늬 프린트의 수영복 위에 입는 해변용 스커트로 천이 앞에서 겹쳐지는 랩 스타일로 당시 열광적인 유행을 일으켰다. 그러나 에디스 헤드는 도로시 라모르를 위해서 디자인되었던 사롱은 “할리우드에서는 그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어울릴 여성이 없다. 만일 모든 여성이 그 심플하고 작은 사롱을 착용하여 도로시 라모르와 같이 보인다면 배우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만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무조건적인 유행추종이 비합리적임을 표현했다.³⁵⁾

2) 글래머 이미지

글래머(Glamour)는 ‘마법’을 뜻하는 ‘gremarye’란 스코틀랜드 고어에서 유래한 grammar를 그 어원으로 한다. 이 어원에서 18세기에는 마술, 마법을 뜻하는 단어 글래머(glamor, glamour)가 탄생하여 부정적이고 사악한 의미로 통용되었고, 19세기 중반에는 ‘낭만적이고 마술을 건 미 혹은 매력’이라는 의미로 대사전에 글래머가 나타났다.³⁶⁾ 사회학자, 영화학자, 문화사학자들이 논하는 글래머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의 귀족계층이나 고급 창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Rubinstein³⁷⁾이 글래머 룩으로 표현한 여성이 개발한 유희이미지는 권력 및 이익추구에서 제외된 여성이 힘을 창조하기 위해 남성의 욕망을 자극하는 관능미이다. Buckley와 Gundle³⁸⁾은 역사적으로 글래머를 지닌 사람은 귀족이라고 말한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귀족 계층은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계층에게 권력을 빼기고, 그들의 글래머는 상업문화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했다. 19세기 고급 창부의 형상이 새로운 문화적 의미로 추정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글래머의 개념은 신발이나 코르셋과 같은 일상품이 전시된 화려한 윈도디스플레이처럼 일부분이 된 현대자본주의와 소비자 문화의 도래로 할리우드의 여배우나 댄서들로 이어진다.³⁹⁾

오늘날 패션에서 사용되는 글래머는 진 할로우, 마를렌 디트리히, 조안 크로포드 등 여배우들로 대변되는 싱글 여성들의 사치스러운 실크 가운, 다이아몬드, 현대 스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저택, 남성과의 유희, 법을 무시하는 비도덕적 행동 등으로 묘사되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출발한다.⁴⁰⁾ 글래머는 성적인 매력을 유발시켜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서, 에로티즘과 함께 현대 패션에서 의미 있는 미적가치로 단순한 성본능의 표출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성을 유희하기 위한 성적 욕구가 반영된 여성복은⁴¹⁾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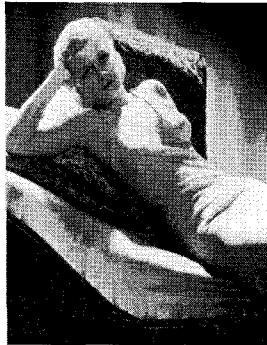
등, 다리 등의 신체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인체에 밀착된 형태의 재단법으로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를 통해 글래머 이미지를 표현한다.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 환상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글래머 이미지는 장르에 구별 없이 대부분의 영화 의상에 나타났다. 1930년대 할리우드의 영화 의상들은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와 페티코트, 보석과 장신구등을 사용해 영화 속 여배우들을 일반인과는 차별된 화려한 존재로 만들었다. 할리우드 영화의상은 새틴, 벨벳, 깃털 등을 이용한 라운지 웨어로 여배우들의 육체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였다. 특히 클로즈업 스틸 사진에서 돋보이기 위해 영화 의상은 얼굴 근처에 초점을 둔 프릴이나 러플 장식을 한다. 호화롭고 사치스런 재료를 사용한 의복은 단순한 재단에 인상적인 디테일을 사용하였다. 등을 깊이 파거나 핀 업 걸과 같은 가슴을 강조한 전형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⁴²⁾ 남성을 유희하는 몸가짐과 환상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의상, 화장품, 보석 등 인공적 술책에 의한 글래머의 관능성은 글래머 이전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여성이었던 요부에 정신성을 가미한 것이다.⁴³⁾

마를렌 디트리히는 파라마운트에 소속되어 디자이너 트레미스 댄튼에게 연마되어 유럽적인 품모로 그레타 가르보와 함께 할리우드 패션리더로서 군림하였다. 새로운 스커트 길이에도 불구하고 마를렌 디트리히는 자신의 관능적이고 우아한 다리를 드러내어 다수의 남성 팬들을 매료시켰다. 마를렌 디트리히는 1930년대 여배우 메이 웨스트(Mae west)가 커다란 가슴으로 성적 매력을 과시할 때, 가슴 대신 자신의 다리를 부각시켜 성적 매력을 나타냈다.<그림 7> 영화 <The Devil Is a woman>(1935)에서 마를렌 디트리히는 스페인 댄서의 전형적인 맨다리 대신 레이스가 가득한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그녀의 검은색 스타킹과 레이스로 장식된 관능적인 의상은 성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스타일은 에로틱한 의상의 대표적인 예로 다수의 영화에서 모방되었다. 또한, 마를렌 디트리히는 색채를 표



〈그림 7〉 마를렌 디트리히
'Dishonored'⁴⁴⁾



〈그림 8〉 진 할로우
'Platinum Blonde'⁴⁵⁾



〈그림 9〉 진 할로우
'Hell's Angels'⁴⁶⁾



〈그림 10〉 마를렌 디트리히
'The Scarlet Empress'⁴⁷⁾

현할 수 없는 흑백영화에서 다양한 재질감을 활용했는데, 타조 털, 모피, 레이스, 망사 등의 다채로운 소재로 사치스런 이미지를 표현했다. 마를렌 디트리히는 영화 〈Shanghai Express〉(1932) 레이스 장식의 드레스나 눈부신 바이어스 컷 라메 드레스로 관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그림 10〉 그녀는 영화 〈Shanghai Express〉(1932)에서 크리스탈 구슬 목걸이, 술, 검은 베일과 깃털 장식으로 검은 백조와 같은 매혹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영화 〈Night after night〉(1932)에서 미웨스트가 입은 레이스와 블랙 네글리제 스타일은 많은 여성들에게 모방되었으며, 풍만한 가슴과 새틴 드레스, 관능적인 메이크업의 이 매혹적인 글래머 이미지는 쇼비지니스 산업 속에서 대중화되었다.

또한, 관능적인 신체의 여배우 진 할로우는 여성의 곡선과 성적인 면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풍만한 가슴과 풍성하고 완벽하게 만든 컬의 금발, 눈썹을 밀어내고 인공적으로 그린 눈썹, 짙은 속눈썹, 붉은 입술로서 글래머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유명한 섹스 심볼 진 할로우는 자신의 머리색상을 위한 플래티넘 염색하여 곧 '플래티넘 블론드(Platinum Blonde)'〈그림 8〉로 알려졌다. '플래티넘 블론드'는 영화 조명에 적합하였고 이브닝 웨어의 주요 색상이었던 회색빛 도는 흰색이나 담황색들을 보완하는 광택 있는 머리 색상이었다.⁴⁸⁾ 플래티넘 블론드는 영화 지옥의 천사들〈Hell's Angels〉(1930) 〈그림 9〉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수천 명의 여성

들의 머리를 염색하게 만들었다. 이는 염색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장 유명한 금발이었던 진 할로우는 영화 〈Platinum Blonde〉(1931)에서 새틴으로 바이어스 재단된 네크 가운 모습으로도 유명해졌다. 언더 웨어를 착용하지 않아 인체의 모든 곡선이 드러나는 진 할로우의 바이어스 컷 가운은 1930년대 할리우드 글래머 룩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를렌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법은 영화의상에 많이 응용되었는데, 이러한 재단법의 이브닝 드레스는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전유물인 듯 다수의 영화에서 선보여졌다. 트라비스 밴튼은 마를렌 디트리히, 미 웨스트 등의 독특한 영화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바이어스 컷에 대한 천부적인 이해와 절묘한 균형감각으로 여성의 곡선미를 잘 나타내었다. 플래티넘 블론드 룩은 매우 인공적이어서 값싸 보이기도 했지만 당시 널리 유행하였다. 이 '빅 화이트 드레스(The big White Dress)'는 할리우드에서 코코 샤넬의 1931년의 흰 이브닝가운과 마를렌 비오네의 바이어스 컷 가운을 응용한 것으로 몸에 달라붙는 광택 있는 새틴 로브를 의미한다. 진 할로우는 흰 새틴 드레스와 플래티넘 블론드로 타락한 천사와 같은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3) 매니쉬 이미지

매니쉬(Mannish)란 '남자 같은'이라는 의미로 매니쉬는 여성복에 남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스타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남녀 평등의 반영으로 등장하였다.⁴⁹⁾ 즉, 남성의 테일러드 슈트를 형태나 스타일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복장에 여성답게 고쳐서 입는다는 의미이다.⁵⁰⁾ 매니쉬 이미지의 색상은 블랙을 기본으로, 아이보리, 브라운, 그레이 등의 어두운 톤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소재는 주로 남성복에 사용되는 소모직물, 저지, 개버딘, 트위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스트라이프, 체크, 헤링본 문양 등이 주로 사용된다. 1930년대 무비 스타 마를렌 디트리히의 판탈롱 슈트를 시초로 1975년 이후 유행한 Three set suit의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매니쉬 스타일은 남녀 동질론에 입각하여 여성의 복에 남성복의 요소를 차용하였으며, 이는 남성과 비슷하게 됨으로써 억압된 사회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일련의 현상으로 여성들의 강력한 자기주장을 위한 반항의식의 한 수단이다.⁵¹⁾ 매니쉬 감각은 여성으로써 자립심이 왕성한 미의식을 표현하며, 남성 취향의 여성 패션을 매니쉬룩이라고 한다. 매니쉬 감각의 종류는 크게 맨디룩, 소년 취향의 보이쉬룩, 그리고 무성 감각 계열의 앤드로지너스룩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라는 말은 양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의미로 남성이 여성화 취향, 또는 여성의 남성화 취향을 포함한다.

복식사적으로 볼 때 매니쉬의 기원은 마를렌 디트리히가 입은 판탈롱 슈트가 기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대성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즉, 시대의 흐름이 복식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영화의상의 특성에 반영되어서 영화의 리얼리티를 증가시켜주었다. 마를렌 디트리히는 <The Blue Angel>(1930)에서 카리스마와 멋진 외모를 가진 스타로서 매니쉬 룩의 전형을 창조 해냈다.⁵²⁾ 영화 <Morocco>(1930)에서 보여준 포멀 매니쉬 슈트 차림은 대표적인 마를렌 디트리히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금발 머리에 햇, 바지 정장을 입고 턱시도 차림의 도회적인 멋쟁이인 그녀는 스포티하기보다는 세련됨을 풍겼다. <그림 12>, <그림 13>은 영화 <Morocco>에서 당시 화제를 일으킨 동성 여인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흰색 넥타이를 매고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의 그녀의 슈트는 매니쉬 룩의 시초가 되었다. 영화 속에

서 자주 매춘부나 악역을 연기했던 마를렌 디트리히는 성적 매력을 앞세워 남성을 굴복시키는 강한 남성적 힘을 소유해야했는데 포멀한 슈트는 이러한 남성적인 힘과 관능적인 매니쉬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 해주었다. 미국의 영화평론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몰리 해스켈(Molly Haskell)은 “남성복 옷차림의 여성은 남성이 지닌 권력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 진기함으로 주목을 받는 동시에 흥분이나 적대감을 가라앉히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불러일으킨다”⁵³⁾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를렌 디트리히는 매니쉬 스타일에 의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데 효과적이지만 생명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Blonde Venus>(1932)에서 흰색의 테일 코트와 탑 햇을 착용한 이후 한동안 영화에서 턱시도를 입지 않았다.⁵⁴⁾ 또한 캐더린 헵번은 바지와 편안하고 수수한 직물의 남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여 지적인 매니쉬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영화 <Queen Christina>(1933)에서 그레타 가르보는 양성적인 매력을 잘 나타냈으며, 이 영화의 의상들은 기발하고 특이하여 영화에만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모방되었다. 그녀는 풀 먹인 높은 흰색의 칼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에 패드를 넣은 군복 재킷을 입었으며 장단지 길이의 부츠를 신었다. 얼굴은 돋보이게 해주는 흰색 린넨의 플리츠 칼라와 무거운 벨벳의 더블릿(doublets), 가죽 저킨(jerkins)은 변형되어 메이시(Macy's) 백화점과 삭스 피프스에 메뉴(saks Fifth Avenue)에서 판매되었다.⁵⁵⁾ 또한 그녀는 의상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화장에서도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이를 패션잡지 「보그」는 ‘가르보이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련의 영화스타들이 가르보 타입으로 변화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소개하였다.⁵⁶⁾ 조안 크로포드의 어깨패드 테일러 슈트는 스커트, 특히 스트레이트 스커트와 함께 유선형의 실루엣을 형성하고, 살짝 들어간 허리선, 여성적인 디테일과 액세서리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느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어깨패드의 각진 어깨는 자신감과 성공, 권위, 강한 이미지의 남성성을 반영하였다.⁵⁷⁾ 이는 여성의 드레스에 남성성의 상징인 각진 어깨를 강조하여 매니쉬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1〉 마를렌 디트리히 〈그림 12〉 마를렌 디트리히
'Morocco'⁵⁸⁾ 'Morocco'⁵⁹⁾

이상으로 1930년대 여배우를 중심으로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이미지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할리우드 황금기의 영화의상 가운데 특히 1930년대를 중점적으로 유행을 창조하는 패션리더인 여배우의 의상을 중심으로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량생산과 획일화와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고전 영화 스타들과 그들의 패션이미지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의

주요 영감이 되었다. 한 시대를 품미했던 패션 아이콘인 여배우들은 현대인들에게 순수했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은 21세기 대중스타들의 패션이미지에서 다양하게 구현되며 주목받고 있다. 193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성적매력과 럭셔리 감각, 우아하고 낭만적인 영화의상은 당시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 스타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커스텀디자인 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패션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문헌과 사진, 영화 등 시각 자료를 이용한 고찰을 통해서 여배우를 중심으로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진다. 첫째 여배우의 이국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 시대의 패션에 유행하던 오리엔탈리즘이 영화의상에 반영된 것이며, 또 하나는 영화작품의 공간적 배경 때문에 배우의 캐릭터가 에스닉 스타일로 표현되어져야하는 경우였다. 에스닉 이미지는 흑, 백 이미지를 배경으로 새틴, 벨벳, 라메, 타조 털, 비즈, 깃털, 망사, 모피, 레이스 등의 소재의 재질감과 이국적인 디테일, 대담한 장신구, 극적인 조명효과 등의 조화로 이국적인 이미지를 더욱 살려 주었고 이러한 이국적인 영화의상은 여배우의 신비로움을 더욱 잘 나타내주었고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여주었다.

<표 1>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이미지

패션이미지	영화명	여배우명	년도	영화의상
에스닉 이미지	Mata hari.	그레타 가르보	1931	▷ 중국풍의 드레스
	Jungle Princess.	도로시 라모르	1937	▷ 터번
	Tropic Holiday	도로시 라모르	1938	▷ 사롱
	The Painted Veil.	그레타 가르보	1934	▷ 면 패전트 블라우스 ▷ 전통자수 끝 처리 스커트
글래머 이미지	Hell's Angels.	진 할로우	1930	▷ 등이 노출된 홀터 넥 드레스
	Platinum Blonde.	진 할로우	1931	▷ 바이어스 재단의 이브닝 드레스
	The Devil Is a woman	마를렌 디트리히	1935	▷ 플래티넘 블론드
	the Blue Angel	마를렌 디트리히	1930	▷ 다리를 드러낸 과감한 노출 ▷ 레이스 장식의 스타킹
매니쉬 이미지	Morocco.	마를렌 디트리히	1930	▷ 통 넓은 정장 바지
	The Blue Angel.	마를렌 디트리히	1930	▷ 담배를 쥐거나 다리를 벌리는 포즈
	Queen Christina.	그레타 가르보	1933	▷ 실크 햇과 턱시도 ▷ 패드가 들어간 군복 재킷

둘째, 글래머 이미지는 인체의 곡선미를 살려서 풍만한 가슴과 어깨선, 잘록한 신체의 매력을 살리는 것으로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들은 장르에 따른 구별 없이 유사한 형태의 실루엣과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역 여배우들의 부드럽고 흐르는 것 같은 실루엣은 당시의 여성복의 흐름과 같이 롱 앤드 슬립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의 각선미를 강조하거나 특히 등을 드러내고 가슴을 가리는 홀터넥 이브닝 드레스 등으로 여성의 관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글래머 이미지는 다리나 등을 직접 노출할 뿐 아니라 팬츠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과 슬릿이 있는 긴 치마와 동색의 구두와 스타킹의 스타일링으로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었다. 또한, 페티코트, 보석, 장신구, 장갑, 베일, 모자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 등이 의상과 함께 코디네이션 되어 글래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셋째, 매니쉬 이미지는 1930년대 관습에 대한 저항과 남녀평등에 대한 의견들이 등장함에 따라 여배우들의 캐릭터에 시대적인 사실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가 반영 되었다. 이는 포멀한 턱시도, 테일러드 팬츠 수트 특히 넥타이를 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 등 전형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으며 대중에게 여배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스타일이었다. 매니쉬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20세기 여성 패션의 획기적인 변화인 바지의 대중화, 남성복의 여성화를 통해 여성의 관능미에 새로운 표현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이상과 같이 영화적으로 과장되게 해석되어진 여배우들의 의상, 메이크업, 헤어, 액세서리 등에 담겨 있는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모방되어 영화를 넘어선 패션 스타일이 됨에 따라 당시의 여배우와 그들의 영화 속 의상 스타일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흑백 영화의 한계를 넘어 매혹적으로 표현된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에스닉 이미지는 현대패션에서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소재를 풍부히 사용한 에스닉 룩에 표현되었고, 글래머 이미지는 성적 기표로서 다리나 등과 같은 신체의 노출은 현대패션에서 관능적인 글래머 룩에 표현되었으며 매니쉬 이미지는 현대

패션에서 쉬크한 매니쉬 룩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계점은 활용된 시각자료가 주로 흑백 영화이거나 흑백 인쇄물로 영화의상의 순수한 색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쉽게 구별이 가는 가죽, 공단, 망사 외에는 정확한 소재의 구별이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꾸준히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는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주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현대적 재해석 등의 다중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권현진 (1994).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아마데우스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2) 이해성 (2005). 영화에 나타난 20세기 서양여성의 화장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1920년대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8.
- 3) 권현진. *op. cit.*, p. 5.
- 4) 이정희 (1997). 영화예술에 나타난 의상이 유행에 미친 영향. *복식*, 31(2).
- 5) 조은영 (1996).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대중패션의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정체성: 193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America's Greatest Legends: the American Film Institute's list of the 50 greatest American screen Legends. 자료검색일: 2007. 2. 3, 자료출처: <http://afi.com>
- 8) Eberle Hannelore, Herman Hermeling, Marianne Hornberger, Dieter Menzer, Werner Ring. (1998). *Clothing Technology*, Verlag Europa-Lehrmittel: Berlin, p. 244.
- 9) Menes Valerie & Amy de la Haye. 김정은(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 94.
- 10) 백영자, 유효순 (1991).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p. 328.
- 11)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 373.
- 12) Giannetti Louis, 김학용 (역) (1992). *영화: 형식과 이해*. 서울: 새물결, p. 7.
- 13) 이정자 (1985). 영화의상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14) 이정자. *op. cit.*, p. 21.
- 15) 유태순, 조은영 (1988). 영화의상이 대중패션에 미친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 p. 174.

- 16) Elizabeth Hurlock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Y: Arno Press, p. 142.
- 17) 강현두 외 (1997).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1920~30년대 할리우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34호, p. 80.
- 18) 성수광 (1997). 의류학개론. 교문사, p. 46.
- 19) Regine & Peter W. Engelmeier(eds) (1997), p. 19.
- 20) 양숙희, 한수연 (2007). 영화의상에 나타난 사치성에 관한 연구-할리우드 황금기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복식, 57(4), p. 83.
- 21) Christine Gledhill 박현미(역) (1999). 스타덤: 욕망의 산업 1. 서울: 시각과 언어, p. 144.
- 22) 이상률 (1993). 스타. 서울: 문예출판사, p. 176.
- 23) 월간 멋 (1991). 멋(6), p. 147.
- 24) 조영아 외 3인 (2007). 샵마스터. 시대고시기획, p. 98.
- 25) 한성지, 김이영 (2007). 패션디자인. 교학연구사, p. 220.
- 26) 장애란 외 2인 (2003). 패션코디네이션. 예학사, p. 32.
- 27) David Bond. *op. cit.*, p. 48.
- 28) Haye. A. (1988). *Fashion Book*. London: A Macdonald Orbis Book, p. 45.
- 29)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allposter.com
- 30)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allposter.com
- 31)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seeing-star.com
- 32)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mdle.dom/Classic Films
- 33)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mptv.com
- 34) Berry Sarah (2000). *Screen Style: Fashion and Femininity in 1930s Hollywoo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134.
- 35) Epstein Beryl (1970). *Fashion is Our Business*. New York: Book for Libraries Press, p. 146.
- 36)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1981). *Springfield, Mass.*: G&G Merriam, p. 962.
- 37) Rubinstein, Ruth P.(1995). *Dress codes: Meaning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pp. 115-7.
- 38) Buckley, Reka C. V. and Gundle, Stephen (2001). *Flash Trash: Gianni Versace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Glamour*. in Bruzzi, Stella and Gibson, Pamela. C. *Fashion Cultures: Theories, Experimentations, and Analysis*. New York, NY : Routledge, p. 331.
- 39) *ibid.*, p. 39.
- 40) Rosa, Joseph(2004). *Fabricating affluence. in Rosa* (Ed). *Glamour: Fashion+industrial design+architectur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in association wit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 16.
- 41) 채금석, 이화정 (2002).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복식, 52(1), p. 112.
- 42) Baudot, Francous (1999).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NY: University Press, p. 104.
- 43) 박주희, 김민자 (2005). 1930년대 할리우드에 나타난 글래머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6), p. 129.
- 44)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mdle.dom/Classic Films
- 45)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seeing-star.com
- 46)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seeing-star.com
- 47)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mdle.com
- 48) David Bond. *op. cit.*, p. 44.
- 49) 한성지, 김이영. 앞의 책, p. 221.
- 50) 조영아 외 3인. 앞의 책, p. 112.
- 51) 정칠선 (1999). *현대패션에 반영된 듀얼리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
- 52) Mulvey, Kate & Richard, Melissa (1998). *Decades of Beauty: the Changing Image of Women, 1980s-1990s*. London: Octopus publishing Group Ltd., p. 84.
- 53) Haskell, Molly (1987). *From Reverence to Rape: The Treatment of women on the Movies (2nd e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12.
- 54) 정소영 (2005). *할리우드 스타의 패션 아이콘 -1930년대~1950년대 여성 스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0.
- 55) Maeder, Edward. *op. cit.*, p. 82
- 56) Losck Ingrid. 이계원(역) (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서울: 한길아트, p. 193.
- 57) 정소영. *op. cit.*, p. 93.
- 58)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stanford.edu/~brooksie/Marlene/Dietrich.HTML
- 59) 자료검색일 2007. 8. 1, 자료출처 www.stanford.edu/~brooksie/Marlene/Dietrich.HTML